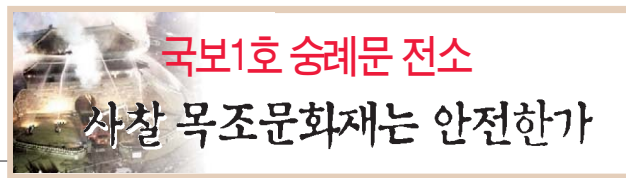


1984년 화순 쌍봉사 화재는 부처님 오신 날 밤 범당 안 촛불이 쓰러지며 순식간에 대웅전 전체를 화마가 휩쓸었다. 그 이후에도 사찰 및 문화재 화재는 이어졌다. 2005년 양양 지역 산불로 불에 탄 낙산사가 대표적 사례다. 승려문 화재로 목조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사찰의 화재방지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그렇다면 반복되는 문화재 화재가 소실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불교목조 건축문화재를 지킬 방법은



없을까? 우선 법률 정비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현재 문화재의 소방방재시설과 관련된 조항은 '문화재보호법 제88조(화재예방 등)' 뿐이다. 소방설비를 구축해야 한다는 원론에 머문 상황에서, 문화재 보호와 특수소방설비 등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법률·시설 보완 인식 전환 시급

## 사찰 방재대책 방안 모색

세부적인 법률 정비 등에 앞서 문화재에 대한 소방개념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조계종 문화부장 수경 스님은 "인명 구조와 재산 보호를 위한 현재 화재진압 개념으로 설치된 사찰 소방설비를 문화재 보호를 위한 화재예방 및 외부환경에 대한 적극적 보존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열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도 "화재진압에 촛각을 다루는 상황에서 화재를 감지하고 신고하는 것이 너무 늦다. 화재 감지 후 통보하는 무인자동 시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분회 행정관(조계종 문화부)도 "방재설비를 모두 갖추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화재감지시스템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재 방재설비를 위한 예산확보도 절실하다고 사찰건축 전문가들은 지적

한다. 조계종이 문화재청으로부터 2007년과 2008년 각각 15억원과 17억을 받았지만 이 돈은 해인사, 낙산사 등 4개 사찰 방재대책시스템 구축에 사용했을 뿐 전체 사찰목조건축물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불교계 자체 예산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이에 대해 고계한 관계자는 "소방시설 등은 무조건 국고 보조로 해결하겠다는 교계인식부터가 문제다. 사찰 관립료 중 예치금을 이용해서라도 소방방재시설을 완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분지 확인 결과 관립료 중 예치금 대부분이 사찰 불사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방재대책 관련 예산편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동현 위원(문화재위원회, 前 동국대학교)은 "국가 차원의 대책과는 별도로 종단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교계 차원의 정밀실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현재 원료된 국보, 보물 등 건조



일본 고야산 단상가람 어영당의 상향식 수막 시스템의 작동 모습. 국내 사찰 목조건축물에도 수막 설비를 응용·적용하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물 124건에 대한 조사를 전 사찰구조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실제 파악 후 사찰 환경에 맞는 방재대비 매뉴얼 작성도 필수다. 김봉열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이에 대해 "전체 사찰을 아우른 매뉴얼이 아니라

각 사찰별 혹은 유형별로 작성된 매뉴얼이 필요하다. 종단이 아닌 각본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대책들과 별도로 사찰건축문화재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애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조동섭 기자

### 사찰 목조건축물 화재보험 가입한다면?

## 得 巨액 복원 비용 보장 든든 失 보험료 사중살림 큰 부담

승려문 소실에 따른 복구비용이 약 200억원으로 알려지면서, 거액의 복원비용이 필요한 사찰 목조건축물 특성상 화재보험가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사찰목조건축물은 보험가입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동부화재 김정기 주임은 "산중 사찰에 화재가 발생하면 전소되기 쉽다. 때문에 적은 금액을 받고 거액을 보장해야 하는 보험사로서는 위험부담이 커 인수를 꺼리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화재보험은 계약 전 실사를 통해 보험가액을 정한다. 사찰 방재시설

등도 참고 된다. 따라서 사찰 방재시설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보험료 합인에 도움 된다. 동부화재가 사찰에 특화해 판매중인 '사찰 종합보험'은 2008년 2월 현재 96건이 가입됐다.

반면에 사찰 목조건축물 보험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분회 행정관(조계종 문화부)은 "문화재는 훼손 후 복원해도 원래 가치를 되찾기 힘들다"며 보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행정관은 "방재시설을 위한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가입보다는) 방재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조동섭 기자

## 화재감지·진압 설비 완벽 구비

### 일본의 문화재 방재관리법

문화재 방재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는 일본도 한때 '승려문 참사'와 같은 어이없는 사건이 있었다. 1950년 7월 2일 교토에 위치한 긴가쿠지의 긴가쿠(金閣)가 방화로 소실된 것이다.

긴가쿠지는 1397년 건축돼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록된 일본이 자랑하는 문화유적지다. 당시 화재는 21살 행자승이 범인으로 실연의 아픔으로 사회에 복수하기 위해 저질러진 참사였다.

이보다 앞선 1949년 1월 26일에는 나라현에 위치한 호류시 금당(金堂)에서 화재가 발생해 고구려 승려 담장이 그린 금당벽화 대부분이 소실됐다. 화재는 벽화 모사 작업을 하던 한 연구원이 사용하던 전기담요가 원인이었다.

긴가쿠지와 호류시 2곳의 화재 이후 충격에 빠졌던 일본은 대대적으로 문화재 방재시스템을 정비했다. 일본의 문화재 방재시스템은 일본 전체 문화재의 9%가 소장된 와카야마현 고야산으로 대표된다.

고야산 소방시스템은 1965년 수립된 계획으로 조기경보체계, 소방선로 등 문화재 방재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췄다. 일본 사찰문화재 방재시스템은 화재진압이 아닌 화재감지와 화재시 문화재 격리를 기본 개념으로 한다.

어영당(御影堂)에는 상향식 수막시스템이 설치 돼 화재시 건물 외부에서 위쪽으로 물이 뿌어진다. 수막 커튼은 화재진압보다 옆건물 혹은 산불 등 외부 화기가 해당 건물로 옮겨 붙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동섭 기자

## 승려문의 주검을 바라보며



기고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장

승려문의 화재의 현장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매일 일간지들은 몇 페이지씩 대서특필하고 있다. 화재가 일어났던 날 나는 이집 일찍 통도사로 향하고 있었다. 궤발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그 날 저녁 TV 뉴스에서 30여분에 걸친 자세한 보도를 접했다. '나라의 대문'이 무너지는 장면은 나라가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불길한 예감마저 들었다. 전국이 초상난 집처럼 적막감이 흐르는 듯했다. 나는 세 가지 면에서 이 국가적 비극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것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선 방화범 개인의 국가에 대한 원한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2002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자기의 토지가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불을 질렀다고 한다. 토지와 단독주택에 상응하는 4억의 보상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저 궁궐 건축의 하나로 가장 오래된 조선초기의 건축물이라니 웅건한 건축이라니 하는 내용뿐이다. '문'이란 중요한 상징을 띤다. 사찰의 '일주문(一柱門)', '사천왕문(四天王門)', '불이문(不二門)' 등을 거치는 것은 절대적 진리인 법계라는 세계로 들어가기 위하여 일종의 통과 의례 절차를 겪는 과정이다.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면서 영화(靈化)되는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는 절대적 진리의 세계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승려문은 우리나라의 공성에 들어가는 정문(正門)이며 대문(大門)이라는 상징성을 띤다. 즉 하늘의 아들이란 천자(天子)의 위상을 지닌 세속들이 절대적 존재가 거주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징을 모르니 애정이 생길 리 없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건축은 이번 화재로 얼마나

## “정체성 잃은 시대에 대한 응징”

금이 1억에 그치지 수차례 탄원했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어도 패소했다. 아마도 그 후 그는 집이라도 장만했는지 70세 된 노인이 끼니를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는 듯하다. 결국 모든 것이 정부의 실정에 맡겨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찰 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국토가 공사판으로 자연이 극도로 훼손되고 있다. 무차별한 약육강식의 세태에서 약자의 억울함이 얼마나 많은 것이며 호소할 데 없는 그들의 원한이 얼마나 큰 것인가. 불교는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 하나는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것이다. 문화예술 관련 부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개인적 이익과 권력에 관심이 있을 뿐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이 없다.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중에게도 전달한다면 모두가 문화유산에 대하여 애정을 갖게 되며, 따라서 올바르게 관리하려는 의무감을 자연스럽게 갖게 될 것이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는 곳이 별로 없으니 악순환은 계속 될 뿐이다. 승려문의 경우, 신문지상에 언급되는 것은 막연한 애탄뿐이다. 어느 화자 한 사람이 승려문의 예술적 가치를 말

다른 나라에 없는 건축요소들을 구비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의 건축은 지붕에 용의 얼굴을 장식했다. 또 기와는 연꽃을 장식했다. 그리고 공포(楹)는 신령스러운 기운을 형상화한 모양인 영기문(靈氣文)을 띠고 있다. 용과 연꽃은 모두 물을 상징하고 있으며 공포도 물에서 일어나는 신령스러운 기운이어서, 우리 조상들이 삼국시대 이래 얼마나 화재(火魔)를 무서워했는지 알 수 있다. 서울 한복판에서 현대장비를 모두 동원하여도 불을 끄지 못한 것을 보면, 예부터 우리의 건축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그 화마를 방지하려는 간절한 염원이 깃들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온갖 상징을 띤 조형물로 심혈을 기울여 건축을 최고의 예술품으로 승화시키려 했는지 오히려 증명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우리의 건축에서 용을 일본인들이 가르친 대로 귀면(鬼面)이라 부르고, 연꽃을 단지 장식이라 인식하고, 공포를 공허하게도 번잡한 소의 혀 바둑이라 부른다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없다.

이번 화재는 정부의 실정과 학문적 오류 등 총체적인 정체성의 상실에서 일어난. 하늘의 응징이라 할 수 있다.